

수림미술상 2022 수상작가 서인혜 개인전 공무도하 公無渡河

2023. 8. 28. Mon — 10. 5. Thu 수림큐브

SRC.F

수림
미술
상
SOORIM
ART
PRIZE

오마
아트센터
자화상

수림미술상은 2017년 제정되어 잠재력 있는 시각예술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림문화재단은 수상작가의 작품 1점을 소장하고, 개인전을 개최하여 작가의 창작활동에 동력을 부여합니다.

수림문화재단은 동교(東橋) 김희수(金熙秀) 선생의 인생철학인 ‘문화입국’을 바탕으로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문화재단입니다. 김희수 선생은 반세기 넘는 세월을 일본에서 보내며 기업인으로 성공하였지만, 일평생 남다른 조국애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배움을 통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본에서는 금정학원(金井學園)을 설립하였고, 한국에서 20여 년간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봉직하며 인재양성에 진력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 수(秀)자와, 부인 이재림 여사의 이름 림(林)자를 합하여 ‘수림문화재단’을 설립,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사랑, 문화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수림문화재단은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자 계승연구, 창작지원,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아트센터와 수림큐브를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숨 쉬는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수림미술상 2022 수상작가 서인혜 개인전 《공무도하 公無渡河》

2023년 8월 28일-10월 5일
수림큐브(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84)

주최 및 주관	수림문화재단
기획, 글	김선옥
홍보	황주혜
그래픽디자인	물질과 비물질
공간디자인, 설치	김연세
사운드 디자인	목소, 차선수
번역	김지선
후원	서울문화재단

© 2023 수림문화재단

본 제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자와 발행처의 허락없이 글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2F	⑥
③	1F	④
①	B1	②

2F ⑤

〈방울물 여인〉

2023, FHD Video, 08'52"

2F ⑥

〈지느러미 발〉

2023, 순지에 잉크, 24×76cm

1F ③

1. 〈백수광부의 눈〉

2023, 스티로폼, 종이, 감태나무 지팡이, 40×50×190cm

2. 〈괘리자고〉

2023, 스티로폼, 종이, 먹, 비즈, 60×50×80cm

3. 〈흐르는 공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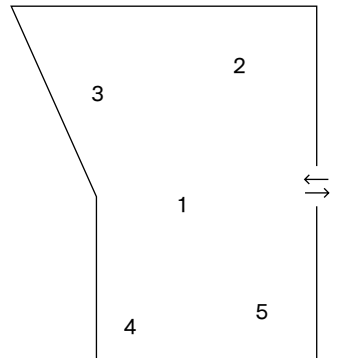
2023, 스티로폼, 종이, 먹, 자개, 나무, 87×60×100cm

4. 〈건너논이〉

2023, 스티로폼, 종이, 비즈, 60×67cm

5. 〈여옥〉

2023, 스티로폼, 종이, 먹, 비즈, 120×70cm



1F ④

〈울과 비늘〉

2023, 혼합매체에 분채 채색, 가변크기

B1 ①

〈무너진 모퉁이의 노래〉

2022-2023, FHD Video, 11'09"

B1 ②

〈긴헛돈 그츠리잇가〉

2022, FHD Video, 17'53", 스티로폼, 종이, 먹, 접착제, 시멘트, 가변크기

미래는 연장해야 할 경험들의 합(합)일뿐'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알려진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로 시작한다. 강을 건너려는 백발의 미치광이 ‘백수광부’를 말리는 그의 아내가 등장하고, 결국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아내도 한탄하며 노래를 부르다 죽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뱃사공 ‘곽리자고’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옥’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부른 노래를 이어 불렀다. 이별과 죽음을 표현하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집단 서사시가 개인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로 변화했던 시기를 대표하는 고대 시가이다.

《수림미술상 후보 작가전 2022》(2022,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서인혜는 어머니의 노동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지역의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만난 할머니들을 리서치한 과정을 설치,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화를 시도했다. 이번 전시 《공무도하》에서 작가는 모계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적 서사와 정서를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서인혜가 영상 작품 《방울물 여인》(2023)에서 인용하기도 한 프랑스 소설가 아니 에르노(Annie Ernaux)의 작품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소설은 자신의 존재적 기원과 사적인 이야기를 다루되,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장하면서 일반적 자전 소설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인혜가 작업에서 지속해 다루고 있는 불안정한 ‘파편들’, 탈중심적인 ‘주변부’에 관한 관심과 여성, 모계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거대한 동시대 포스트 휴먼 담론에 기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대적 흐름을 같이 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미시적인 세계는 그의 작업에서 새로운 기호와 언어로 작동하면서, 고정된 위계를 다시 설정한다.

《공무도하》는 2층-1층-지하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수림큐브 6개의 공간을 유기체처럼 연결하고 있다. 6개의 다양한 조각들은 한데 모여 이야기를 완성한다. 작가의 외할머니 생전에 함께 여행했던 기억부터 시작하여 모계의 유전으로 이어지는 신체적 통증의 원인을 시간을 거슬러 추적한다.(2층) ‘물’을 매개로 이어지는 생사는 고대 서정시와 작가의 경험이 중첩되어

새로운 풍경이 된다.(1층) 광물질로 남겨진 사라진 존재는 반복되는 노래를 통해 영속성을 획득하고,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이어진다.(지하)

1. 비연대기적 시간에서 반복되는 것들 (2F)

2층의 왼쪽 방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상작품 <방울물 여인>(2023)은 서인혜가 외할머니와 함께 여행하면서 방문했던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그때와 현재의 시차에서 사라진 이를 기억하기 위해 작가는 그 흔적을 찬찬히 더듬는다. 하강하는 물의 중력을 거스르며 폭포수가 상승하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가 바다 물거품으로 변한 극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조개껍데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초월한 죽음은 결국 다시 생이 된다.

서인혜는 어렸을 적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욕망과 더불어 모계 유전에서 기인하는 발의 무지외반 통증을 고대 해양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건너편 방에 설치된 드로잉은 얇은 순지 위에 다양한 지느러미의 외형이 드러난다. 인간의 발이 이토록 유약한 이유는 어쩌면 고대 생명체의 지느러미가 온전히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작가는 상상했을 것이다.<지느러미 발>(2023))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양한 이미지의 몽타주로 제시되는 작가의 이야기에서 시간은 반드시 연대기 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2. 아무리 막아도, 일어날 어떤 일은 일어난다는 것² (1F)

계단으로 내려와 1층 오른쪽 방을 들어서면 푸른빛이 감도는 기묘한 장면을 마주친다. 낮은 생명체처럼 보이는 <백수광부의 눈>(2023)은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백수광부, 걸음이 불편했던 작가의 외할머니, 그리고 작가가 만났던 할머니들의 발걸음을 보조하는 지팡이가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상으로 존재한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등장인물 ‘곽리자고’와 ‘여옥’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다. 물에서 태어나

다시 물로 돌아가는 ‘백수광부’는 생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순환에서 존재한다. 그와 그의 아내 죽음이 단지 비극만은 아닌 까닭이다. 죽음으로 끊어진 노래를 자신의 목소리로 이어 부르는 ‘여옥’은 자신의 언어로 끊임없이 세계를 재현하는 작가와 닮지 않았는가.

1층 왼쪽 방은 다양한 형상의 파편들이 모여 있다. 물을 건너다 죽음에 이른 존재는 결국 물속에서 광물질이 되었다. 서인혜의 작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이어진다. 리서치 작업 중 만났던 할머니들의 꽃무늬 패턴 의복이 마치 물고기의 비늘(scale)처럼 작가에게 느껴졌고, 이것은 비늘의 영어단어 ‘scale’의 다른 의미인 ‘음계’로 연결되어 <울과 비늘>(2023)로 구현되었다고 작가는 말했다. 국악의 12울을 우리나라 타악기 편경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밀양의 만어사에 내려오는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거처를 찾는 용왕의 아들을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가 만어사에 도착하자 크고 작은 돌로 변했다는 고대 설화가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이 이 돌로 편경을 제작하려 했으나 소리가 일정하지 않아 결국 악기가 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선택받지 못하여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과거의 음/돌은 이번 전시에서 무수한 조각이 되어 현존할 수 있게 되었다.

3. 끊어지고 이어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B1F)

지하 왼쪽 방에 위치한 거대한 광물질의 합은 소리를 내며 공간을 채우고 있다. <긴헛든 그츠리잇가>(2022)는 고려 가요 <정석가>에 나오는 구절 중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는 의미로, 결합과 소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죽음은 순간적인 단절일 수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려는 의지로 우리는 생을 이어간다. 영상에서 해금, 거문고, 피리로 ‘시김새’가 반복적으로 연주된다. ‘시김새’는 전통음악에서 중심음과 중심음 사이를 연결하고 꾸며주는 장식음이다. 도레미파솔 같은 정음들 사이에 존재하지만, 정의 내려지지 않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는 수많은 주변음을 의미하는 ‘시김새’는 작가의 작업을 관통하며 조형과 음향의 외양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방에 붉은색 커튼이 둘러싸인 <무너진 모퉁이의 노래>(2023)가 있다. 작가가 만났던 할머니들의 읊조림, 표범 무늬와 호피

무늬,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1985), 그리고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1936)을 영화화한 <킬리만자로의 눈> (1952)의 다양한 이미지와 사운드가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서인혜는 일종의 매개자 역할을 자처한다. 이번 전시는 ‘물’에서 시작하여 ‘산’으로 귀결된다.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배경이며, 외할머니와 공존했던 중요한 장소인 ‘물’은 중력에 의한 ‘하강’을 의미한다. 반면, 초원에 서식하는 표범이 기어코 눈이 덮인 높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의지는 ‘상승’을 표현한다. 이처럼 작가는 생과 사, 이상과 현실, 과거와 현재 등의 경계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려 부단히 애쓴다.

작가는 꽃무늬 의복 패턴, 표범 무늬 같은 기호를 직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표면에서 작동하는 기호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온갖 불온한 세속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표범 무늬가 사실은 표범이 사냥 위장술의 형태로 가족의 반점을 스스로 진화시킨 것이고, 작가는 이를 “자연계에 섞이기 위해 진화한 검은 대화”라 했다. 이것은 결국 ‘껍데기’가 단지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다. 세련되고, 정제된 것은 때때로 본심을 숨긴다. 날것의 투박함은 때때로 오해를 쉽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속에 어떤 ‘진심’이 있는지 직접 껍데기를 들춰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서쪽 봉우리에 얼어붙은 의문의 표범 시체가 하나 있다. 넓고 푸른 세렝게티 초원을 벗어나 해발 5,895미터의 높은 설산 꼭대기에서 표범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작가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는 것, 이번 전시에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의 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 답의 단서는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인혜의 시간에서 “미래는 연장해야 할 (과거의) 경험들의 합(合)”인 까닭이다.

1. 아니 에르노(Annie Ernaux), 「세월」, 신유진 역, 1984BOOKS, 2022, p. 98.

2. “물을 건너지 말라” 한다.(공무도하 公無渡河) 이 다음 구절은 ‘공경도하 公竟渡河’, 임은 기어코 물을 건너셨네. ‘무’는 여기서는 ‘없음’이 아니라 ‘없어야 함’이다.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이 글자에 담겨있다. ‘경’은 ‘마침내’ 혹은 ‘드디어’를 뜻하니, 이는 어떤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요컨대 이 노래는 간절한 ‘무’를 냉혹한 ‘경’이 무너뜨리는 구조로 돼 있다. 인생에는 막으려는 힘과 일어나려는 힘이 있다는 것, 아무리 막아도, 일어날 어떤 일은 일어난다는 것. (신형철, 『인생의 역사』, (주)난다, 2022, pp. 34-35.)

The Future as a Series of Experiences to Carry Forward¹

"Do not cross the water, my dear."

Known to be the oldest lyric poem in Korea, *공무도하가* (公無渡河歌), or *Gongmudohaga*, begins with this widely known phrase. The poem portrays a white-haired madman ("Baeksugwangbu") determined to cross a river and his cautious wife bound to dissuade him. When the husband ultimately drowns in the river, the wife laments and sings to see her own demise. Witnessing this event, "Gwakrijago," a boatman, relays the story to his wife "Yeoh-ok," who goes on to sing the same song. *Gongmudohaga*, a story about good-byes and deaths, is an ancient lyric poem that represents an era in which collective narrative poems that reflected historical times transitioned into lyric poems that, instead, depicted personal emotions.

For the 2022 Soorim Art Prize Finalists Exhibition (2022, Kimheesoo Art Center), Inhye Seo endeavored to verbalize the process of her research—a project catapulted by her interest in her mother's labor and involved older women she encountered while attending residency programs in various places—through a range of mediums, including installation, video, and sound. In the current exhibition, *Gongmudoha*, Seo more readily shares personal narratives and sentiments through stories of her maternal lineage. This approach bears semblance to the structure of French novelist Annie Ernaux's *The Years*, which Seo references in her video piece *Droplet-Water Woman* (2023). This is because, the novel engages with Ernaux's own existential origins and personal stories yet expands them into the social sphere without restricting itself to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autobiographical literature.

The two central themes Inhye Seo continues to explore in her work—her interest in imperfect "fragments" and the decentered "peripheries" and stories about women and maternal lineages—naturally exist on the same historical matrix without having to rely on an overarching contemporary post-humanist discourse. The microcosmic world that Seo focuses on operates as new symbols and languages in her work and restructures the extant hierarchies.

Gongmudoha unravels in the order of the 2nd floor, 1st floor, and the basement, organically linking the six exhibition spaces of Soorim Cube. Six distinct sculptural pieces converge in one space to complete a story. Starting from the memory of traveling with her maternal grandmother, Seo traces her maternally inherited pain back in time, across generations. (2nd Floor) The stories of life and

death, mediated by the "water" motif, interweave ancient lyric poems and Seo's personal experiences to manifest as new landscapes. (1st Floor) The vanished, remaining only as mineral matter, gains eternity through a repetitive song, and new questions arise from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Basement)

1. Events that repeat in non-chronological time (2F)

The video piece in the left-side room of the second floor, Droplet-Water Woman (2023), originates in Seo's memory of visiting Niagara Falls with her maternal grandmother. Seo meticulously examines the traces of the departed, who left in the in-between time of then and now. Like how waterfalls defy gravity and retreat upstream over time, and how Aphrodite is born from a shell in the ocean after her father Uranus fades into foam, a transcendental death eventually leads to a birth.

Seo finds the origin of her childhood desire to become a ballerina as well as the painful hallux valgus, a condition that is passed down matrilineally, in the evolution process of an ancient marine organism. In the drawing installed in the opposite room, various forms of fins emerge on thin mulberry paper. It seems that Seo imagined the reason for human feet's fragility to be the incomplete evolution of the fins of ancient lives. (Fin Foot (2023)) Events do not necessarily occur chronologically in Seo's stories, presented through a rich montage of images that traverse the past and present.

2. No matter how hard you try to stop it, some things are meant to happen² (1F)

Downstairs in the right-side room of the first floor, a strange scene glowing in blue light greets visitors. Baeksugwangbu's Eye (2023), an unusual life form at first glance, is a hybrid construction of Baeksugwangbu in the Gongmudohaga poem, Seo's maternal grandmother who had difficulty walking, and the canes of the older women who Seo met at residencies. The other characters in Gongmudohaga, Gwakrijago and Yeoh-ok, assume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play their own roles. Baeksugwangbu, who came from and returned to water, exists in the grand cycle of life and death. For this reason, his and his wife's deaths are not mere tragedies. Lastly, Yeoh-ok, who uses her voice to continue the song interrupted by death, indeed resembles Seo herself, who uses her language to constantly represent the world.

Inside the left-side room of the first floor, fragments of various forms gather around. The being that perished while crossing a river became mineral matter in the water. Seo's artworks are linked together, one leading to the next. Seo explains that the floral-patterned clothes of the senior women she met during research reminded her of fish scales, which then brought her to contemplate musical scales and subsequently create *Musical Notes* and *Fish Scales* (2023). This piece, which visualizes the 12 note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the image of the percussion instrument *pyungyeong*, originates from the myth passed down to Manohsa Temple in Milyang, South Korea. This ancient lore goes: a myriad of fish that followed the Dragon King's son in search of a new abode turned into small and large stones upon arriving at Manohsa Temple. Then, King Sejong of the Joseon Dynasty tried to create a *pyungyeong* using these stones to no avail due to the inconsistent sounds. The notes/stones of the past that were not chosen to see the light of day became countless fragments in this exhibition.

3. Rupture and connection, descent and ascent (B1F)

The conglomerate of mineral matter emits sounds and fills up the left-side room of the basement floor. *Geenhitdeun Gechereetga* (2022), which means, "(Even if a bead falls on a rock,) will the thread break?" is a line from the *Goryeo Gayo* (songs from the Goryeo kingdom, 918-1392) "*Jungseokga*," a song about the potential for union and connection. Death may be a momentary rupture, but we continue with life with the will to overcome and transcend it. In a video piece, instruments such as *haegeum*, *geomungo*, and *piri* play a repetitive "*sigimsae*" melody. "*Sigimsae*" are grace notes that bridge and ornament the intervals between central notes. "*Sigimsae*," the countless peripheral notes that exist among the central melody yet are undefined and almost overlooked, permeate Seo's works and operate as their formal and auditory motif.

Finally, in the right-side room stands *Song of the Collapsed Corner* (2023) draped in a red curtain. This piece presents a repetitive intermingling of images and sounds, from the murmurs of the older women Seo met, leopard and tiger patterns, Cho Yong-pil's song "*The Leopard of Kilimanjaro*" (1985), and the film *The Snows of Kilimanjaro* (1952) which is an adaptation of Hemingway's novel of the same title (1936).

Seo voluntarily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This exhibition begins with "water" and culminates in the "mountain." "Water," the background of *Gongmudohaga* and the pivotal place where Seo coexisted with her grandmother, symbolizes the gravitational "descent." On the other hand, the determination of a grassland-

dwelling leopard to climb to the top of a "mountain" represents "ascent." As such, Seo makes every effort to connect disparate worlds at the boundaries of life and death, ideals and reality, and past and present.

Seo intuitively processes and presents signs, such as floral garment designs and leopard patterns, to raise questions about signs that operate on the surface. Often associated with provocativeness and materiality in today's world, the pattern of a leopard is actually the animal's camouflage: spots that evolved into a pattern for ease of hunting. Seo describes the leopard pattern as "black plum blossoms that developed [for the animal] to blend into the natural world." Ultimately, this emphasizes that a "surface" exists not only as a boundary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The sophisticated and refined sometimes conceal true intentions. The raw and unpolished are often misunderstood. This is why we must examine and listen to surfaces closely, for it is difficult to see what "real intention" lies beneath without uncovering the surface.

A mysterious frozen corpse of a leopard lies on the west peak of Africa's Mount Kilimanjaro. What could have drawn the leopard away from the vast Serengeti plains, 5,895 meters above ground, to the snowy mountaintop? This perhaps represents Seo's endless journey—her pursuit of the answer to the questions that continue to unravel in this exhibition. However, the clues to that answer are not in an unpredictable distant future. For, in Seo's time, "the future is a series of [past] experiences to carry forward."

1. Ernaux, A. (2022). 세월. (Y. Shin, Trans.). 1984BOOKS. (Original work The Years published 2008). 98.

2. She says, "Do not cross the water." (Gongmudoha 公無渡河) The following phrase, "My dear crosses the water at last," is Gonggyeongdoha 公竟渡河. Here, the letter "mu" [in Gong"mu"doha] does not mean "absence" but "must not happen." This character embodies the earnest request not to carry out a certain action. "Gyeong" [in Gong"gyeong"doha] means "at last" or "finally," indicating that a certain event has eventually taken place. In short, this song follows a framework where the earnest "mu" is destroyed by the relentless "gyeong." In life, there are preventative forces and propelling forces. No matter how hard you try to stop it, some things are meant to happen. (H. Shin. (2022) The History of Life. Nanda Inc. 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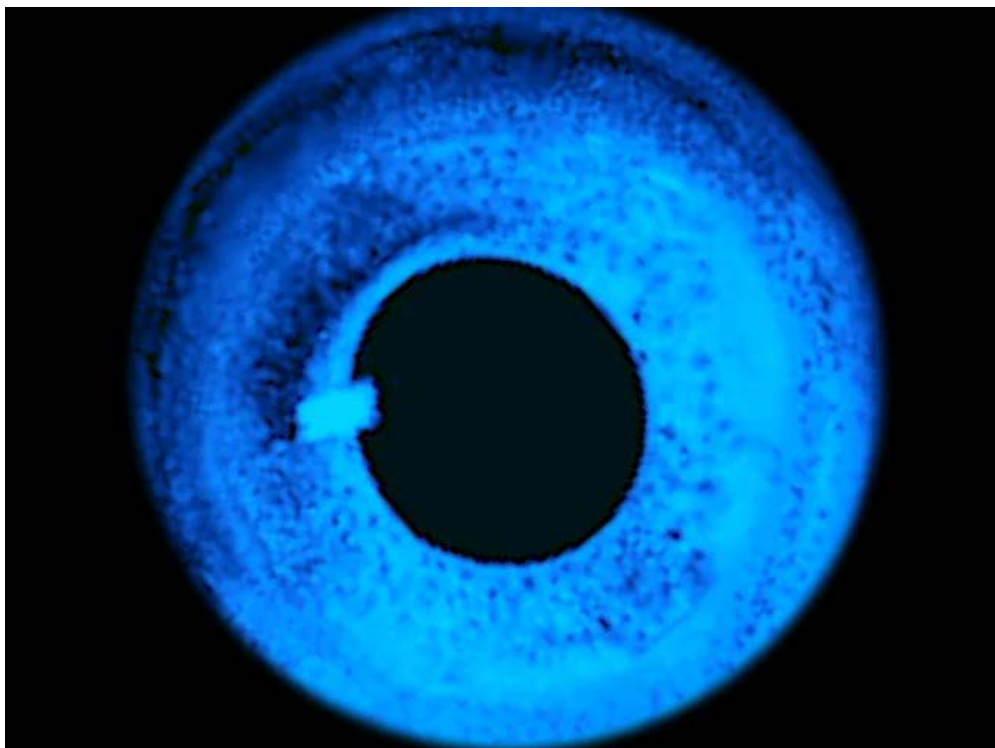
〈긴히든 그츠리잇가〉 2022, 스티로폼, 종이, 먹, 접착제, 시멘트, 가변크기



서쪽 정상 가까이에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가 있다.



〈방울물 여인〉, 2023, FHD Video, 8min 52sec





〈울과 비늘〉, 2023, 혼합매체에 분채 채색, 가변크기



〈지느러미 발〉, 2023, 순지에 잉크, 24×76cm

작가노트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줄곧 걸음걸이, 걷는 방식, 발자취 같은 것을 생각했다. 지난 몇 년간 서울이 아닌 곳에서 여러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걸음, 자세, 몸짓 등이 눈을 감아도 그려졌다. 구부러진, 절룩거리는, 힘없는 소리 같이 또렷하게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 말해지는 일에 대해 고민했었다. 언어화 되지 못한 형상과 소리, 비언어적 감각들을 ‘시김새’라는 우리 음악의 장식음적 기법에 빗대어 표현해왔다. 시김새는 음과 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는 근육 같은 장치로 걸음걸음을 도와주는 지팡이 역할을 한다. 내가 줄곧 걸음걸이 같은 것을 떠올린 이유는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발의 통증 때문이었다. 무지외반증은 모계의 유전적 병으로 엄마, 할머니로 이어져 세대를 거쳐 반복된다.

이번 전시는 본인의 할머니와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열두 살 때, 걸음이 불편한 할머니와 단둘이 나이가가라 폭포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할머니는 죽기전에 그 폭포가 꼭 보고싶다고 했었다. 몸에 내재된 물을 매개로 하는 생물학적 기억을 따라 물로 회귀한 이를 생각하며 <공무도하가>를 다시 불러본다. 지느러미가 발로 온전히 진화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생명체는 지팡이를 짚으며 소리로 시각을 그린다. 몸을 덮고 있던 비늘조각들이 음계(scale)가 되어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을 관통한다. 할머니의 시간에서 나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이 작업은 조상들의 과거를 재기억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마침내 개인의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파편화된 시간을 재서사하고 조금씩 자신의 소리와 리듬을 회복한다.

Artist Statement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I constantly thought about posture, walking style, and footsteps. After meeting numerous older women outside of Seoul during the past few years, I could picture their walks, posture, and gestures with my eyes closed. I contemplated ways of verbalizing things that cannot be clearly articulated, such as something crooked, someone limping, and faint voice. I have metaphorized forms and sounds that are yet to be verbalized, the non-lingual senses, to sigimsae (시김새), a technique in Korean traditional music comparable to grace notes. Sigimsae, like sinew, is a device that organically connects one note with another. It is like a cane that helps its user make one step after another. The reason I kept thinking about footsteps and the like was because of the constant pain in my foot due to a bunion. A bunion, a hallux valgus, is a maternally inherited condition that traces back to one's mother, from her to her mother, and so on.

This exhibition begins from my experience with my grandmother. When I was twelve, my grandmother and I alone went on a trip to Niagara Falls. She had difficulty walking. She said that she yearned to see the falls before she died. Today, I revisit and recite Gongmudohaga as I reflect on the ones who returned to water following their inherent biological memory mediated by water. The beings, whose fins have not quite evolved into feet, walk on canes and envision with sound. The scales covering their bodies become musical scales and resonate far beyond human lifespans. This work, which connects my time with my grandmother's, is an attempt to reconceive ancestral memories and bridge the gap between the human and non-human worlds. Finally, it is an attempt to once again narrate the fragmented time caused by a personal bodily pain and gradually recover one's own voice and rhythm.

서인혜 (b. 1988)

교육

- 2016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학과 석사 졸업
- 2012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학과 학사 졸업

개인전

- 2023 <방울물과 지느러미 발>, 박수근미술관, 양구
- 2021 <구멍 난 자리에서 춤을 추는>,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20 <나무 껍질을 입는 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9 <버무려진 막>,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 2018 <버무려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 2016 <버무려진 숨>, 갤러리 도스, 서울

단체전

- 2022 <2022 경기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공간 12인 3색>, 영은미술관, 경기
- 2022 <수림미술상 후보작가전 2022>, 김희수 아트센터, 서울
- 2021 <낮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20 <당신의 K에 대하여>, Sema 창고, 서울
- 2020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사사사람>, 시민청 갤러리, 서울
- 2020 <2020 프리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 2019 <Drawing on paper>, 예술공간 서로, 서울
- 2019 <Twilight zone>, 임시공간, 인천
- 2019 <유니온 아트페어 All about love>, 에스팩토리, 서울
- 2019 <가창 아트맵 프로젝트 결과전-꽃, 사슴, 숲, 밤>,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
- 2018 <dotzari 프로젝트 성과 보고전-이어지기>, 스페이스 닷, 부산
- 2018 <제9회 書歌 협력의 진화>, (재)한원미술관, 서울
- 2018 <2018 프리뷰>,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영천
- 2018 <제3회 뉴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 2017 <7번 유형>, 인디아트홀 공, 서울
- 2017 <중흥-한국화 제9회 청년작가초대전>,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 2015 <상중모색>, 우석갤러리, 서울
- 2014 <사이너머>,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 2014 <시대정신과 동양회화의 표현의식>, (재)한원미술관, 서울
- 2014 <제1회 열림 필가묵무(筆歌墨舞)>,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아트센터, 서울

레지던시

- 2022 박수근미술관창작스튜디오, 양구
- 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5기, 청주
- 20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7기, 대전
- 2019 가창창작스튜디오 19기, 대구
- 2018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0기, 영천

지원

- 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시각예술
- 2022 경기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 2020 경기도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금
-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지원-전시사건연구 지원

프로젝트

- 2021 코로나 19 예술로 기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0 노인의 삶에 예술로 공감하는 이야기집 프로젝트, 서울
- 2019 예술 공간 : 서로 프로젝트, 서울
- 2019 가창 아트맵 프로젝트, 대구
- 2018 하우와유 돛자리 프로젝트, 부산문화재단, 부산

수상

- 2022 수림미술상
- 2018 인카네이션 문화예술재단 예술상

활동

- 2019 <월요쌀롱>, 토탈미술관, 서울
- 2019 대명공연예술센터 기획전시 <예술하는 사람들>, 대구

Inhye Seo (b. 1988)

Education

- 2016 M.F.A.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012 B.F.A.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lo Exhibitions

- 2023 *Droplets and Flippers*, Park Sugeun Art Museum, Yanggu
- 2021 *Dancing in the Empty Spac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 2020 *Body Wearing Tree Bark*,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 2019 *Collapsed Curtain*, Gachang Art Studio, Daegu
- 2018 *Collapsed*, Yeongcheon Art Studio, Yeongcheon
- 2016 “버무려진 숲”, Gallery Dos, Seoul

Group Exhibitions

- 2022 *2022 Gyeonggi Visual Arts Performance Exhibition - Vivid Flowers in Space: 12 Artists, 3 Colors*,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gi
- 2022 *Soorim Art Prize Finalist Exhibition 2022*, Kim Hee soo Art Center, Seoul
- 2021 *Unfamiliar City, Arriving People, What Stories*,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 2020 *About Your 'K'*, SeMA Storage, Seoul
- 2020 *Story collection activity sharing event that empathizes with the lives of the elderly through art : Sasairam*, Citizens' Office Gallery, Seoul
- 2020 *2020 Preview*,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 2019 *Drawing on Paper*, artspace seoro, Seoul
- 2019 *Twilight Zone*, Temporary Space, Incheon
- 2019 *Union Art Fair All about love*, SFactory, Seoul
- 2019 *Gachang Art Map Project Results Exhibition - Flowers, Deer, Forest, Night*, Gachang Art Studio, Daegu
- 2018 *Mat Project Performance Report Exhibition: Continuity*, Space Dat, Busan
- 2018 *9th The evolution of collaboration*, Hanwon Art Museum, Seoul
- 2018 *2018 Preview*, Yeongcheon Art Studio, Yeongcheon
- 2018 *3rd New Drawing Project*, Yangju City Chang Ucchin Museum, Yangju
- 2017 *Type 7*, Indi Art Hall, Seoul
- 2017 *Jungheung - 9th Young Artists Invitational Exhibition of Korean Painting*, Chosun Art, Seoul
- 2015 *상중모색*, woosuk gallery, Seoul
- 2014 *between the Beyond*, Gyeong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 2014 *Zeitgeist and Expression Consciousness of Oriental Painting*, Hanwon Art Museum, Seoul
2014 *1st Opening* 필가목무, Ewha Art Center,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sidencies

- 2022 Art Studio of Park Soo Keun Museum, Yanggu
2021 Cheongju Art Studio 15th Generation, Cheongju
2020 Daejeon Temi Art Creation Center 7th Generation, Daejeon
2019 Gachang Art Studio 19th Generation, Daegu
2018 Yeongcheon Art Studio 10th Generation, Yeongcheon

Grants

- 2023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 Creation Support Project - Visual Arts
2022 Gyeonggi Arts Suppor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Province
2020 Gyeonggi Province Youth Artist Independent Support Grant
2020 Visual Arts Support from the Arts council Korea - Exhibition Pre-research Support

Projects

- 2021 COVID-19 Art Documentation Project, Arts council korea
2020 Story collection activity sharing event that empathizes with the lives of the elderly through art Project, Seoul
2019 Artspace: seoro Project, Seoul
2019 Gachang Art Map Project, Daegu
2018 Hawau mat Project, Busan Cultural Foundation, Busan

Awards

- 2022 Soorim Art Prize
2018 Incarnation Cultural and Art Foundation Art Award

Activities

- 2019 Monday Salon, Total Museum, Seoul
2019 Daemyeong Performing Arts Center Planned Exhibition 《Artistic People》, Daegu

